

##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쟁점과 경험적 탐색\*

김 성 언\*\*

###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서구의 일반적 경험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의 두려움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지, 둘째, 노인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두려움 격차가 완화되는지 아니면 더 벌어지는지를 밝히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연령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는 위험 인지, 동네의 무질서 및 사회 통제 정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는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가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의 독립적인 효과를 노인들의 잠재적인 무감각화 과정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범죄 피해의 위험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나, 노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을 낮게 평가하거나 이에 대해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노인들의 범죄 위험에 대한 저평가 혹은 무감각화 현상이 인생 경험을 통해 누적되어 온 범죄 피해에 대한 상황 정의의 수정, 노인 공경에 대한 기대, 범죄보다는 건강이나 질병 등으로의 관심사의 이동 등 다양한 노인의 심리적·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범죄 피해 조사 자료 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논증은 차후의 발전된 연구로 넘기면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

- ❖ 주제어 : 노인, 범죄의 두려움, 취약성, 무질서, 사회 통제, 범죄에 대한 관심, 범죄 표적으로서의 매력성, 무감각화

\*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회 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2012년 12월 17일)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 I. 문제 제기

일반적으로 서구의 논의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이 연령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Kennedy and Silverman, 1990). 노인들의 범죄 피해 수준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보고하는 현상은 ‘두려움 범죄 피해’의 역설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연령과 두려움 간의 관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들은 두 변인 사이에 부(-)의 관계를 보고하며, 다른 연구들은 두 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Ziegler and Mitchell, 2003). 서구에서는 연령과 두려움이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그 관계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는 국내 학자들에게도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그렇지만 국내 학자들은 연령과 범죄의 두려움 간 정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오히려 국내 연구들은 연령과 두려움 간의 부(-)의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노성호·김지선, 1998).

서구의 학자들은 노인들의 두려움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이유를 ‘취약성’의 문제로 설명하곤 했다. 하지만 이론적 기대와 달리 노인들의 두려움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지 않다는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다른 논거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두려움에 대한 이웃의 맥락 효과를 탐구하는 것은 두 번째의 주요 접근 방향이다. 이 관점은 두려움이 개인과 환경 간 ‘융합 부족’(Taylor and Hale, 1986: 188),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Donnelly, 1988: 84)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부터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라그란제와 동료들(LaGrange, Ferraro, Supancic, 1992)의 전국적인 조사 연구는 사회적 비시민성(incivility)이 두려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연령은 사실상 사회적 비시민성과의 관계를 통해 두려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을 지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범죄에 대해 덜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미국 전역에서 환경이 더 좋은 동네에 불균형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몇몇 학자들은 ‘범죄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방식이 연령별 두려움의 수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Ziegler and Mitchell, 2003: 174). 노인들은 거리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범죄 피해에 관해 질문을 받는다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내보이지만, 자기 집에서의 피해 혹은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해 질문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가 사라지거나 역전된다는 것이다(LaGrange and Ferraro, 1987). 때문에 이들은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히 범죄의 두려움(fear)과 인지된 위험(risk)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에 비해 성(sex)이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는 보다 분명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성별 두려움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연령별 두려움 수준은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높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두려움에 미치는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연구들은 노인 남성들의 두려움이 젊은 여성 수준에 근접하거나(Smith et al., 2000) 여성 평균보다 높은 수준(Beaulieu et al., 2007)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연령과 범죄의 두려움 간 관계는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범죄에 대해 갖는 두려움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서구의 일반적 경험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의 두려움 수준이 더 낮은지를 밝히는 일이 이 글의 주된 목표이다. 아래에서는 2011년 4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 쟁점들을 논증해보겠다.

##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 문제

### 1.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요 쟁점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최근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노인들의 두려움 수준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높다는 명제가 정립될 수 있는가? 둘째, 나이가 들수록 성별에 따른 두려움 수준의 격차는 좁혀지는가 아니면 더 벌어

지는가?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 봤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의 두려움도 더 커진다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 결과들은 그렇게 명료하지 않다. 자에글러와 미첼(Ziegler and Mitchell, 2003)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뒤, 16개의 연구들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을 발견했고, 2개의 연구에서는 젊은 사람과 노인 간에 어떤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7개의 최근 연구들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덜 무서워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데멀트와 말론(Dammert and Malone, 2003) 역시 노인과 젊은이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다른 몇몇 학자들(Kanan and Pruitt, 2002)도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기호를 덜 보여준다고 보고한다. 와인레스와 가트렐(Weinrath and Gartrell, 1996)은 젊은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대해 ‘민감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이에 둔감하다고 추정하였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범죄의 두려움도 높아진다는 주장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 같지 않다.

둘째 쟁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의 두려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은 잘 정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범죄의 두려움이 여성에게 속하는 문제로 규정되어져 왔기 때문에 남성은 종종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노인 남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취약성, 특히 범죄 피해, 신체적으로 허약하다는 생각, 불안, 혹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남성의 두려움을 연구한 몇몇 학자들(Schafer, Huebner, and Bynum, 2006)은 사실상 노인 남성들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노인 남성의 두려움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즉 성과 연령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각각의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미치는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문제와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평준화 가설과 이중 위험화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노성호 · 김지선, 1998: 178).

평준화 가설은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성의 효과를 완화시킨다고 본다. 이 가설은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허약해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지만, 여성의 두려움은 연령에 관계없이 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에 대한 성차는 감소한다는 것이

다. 볼리유와 동료들(2007)은 남성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즉 남성성의 역할과 기대가 나이가 들에 따라 약화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지 잘 보여준다. 사실 남성은 아동기부터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도록 조건화된다(Moss and Moss, 2007). 하지만 점차 늘어갈수록 남성은 낮 혹은 밤에 동네를 걸어 다니는 것에 대한 걱정과 같은 불안의 감정들을 더 많이 표출한다.

반면 이중 위험화 가설은 여성의 경우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령 효과가 오히려 강화된다고 본다. 나이 많은 여성은 나이든 남성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더 취약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복 능력이 더 낮다. 따라서 노인 여성은 성과 연령이라는 두 가지 부정적 효과 때문에 이중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과 노인의 높은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주력해왔다. 직·간접적인 범죄 피해 경험, 취약성, 무질서, 사회 통합 등은 여성과 노인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 공헌해왔던 주요한 요인들이다. 여기서 범죄 피해, 취약성, 무질서는 범죄의 두려움을 촉진하는 요인이고 사회 통합은 억제하는 요인으로 평가되는데, 서구의 논의들은 대개 여성과 노인들이 남성과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이 촉진 요인에 대한 보유 혹은 인식의 정도는 높고 억제 요인에 대한 보유 혹은 인식의 정도는 낮기 때문에 두려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가 서구와 다른 것은 이와 같은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의 분포, 이 요인들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이나 그것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에 먼저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설(범죄 피해, 취약성, 무질서, 사회 통합, 생활양식, 통합적 접근)에 대해 탐색해보자.

첫째, 범죄 피해 가설에서는 범죄 피해가 범죄의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본다. 몇몇 학자들은 폭력 피해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범죄의 두려움을 보임으로써 범죄 피해와 두려움 사이에 정(+)<sup>1</sup>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Dammert and Malone,

2003; Kanan and Pruitt, 2002)). 하지만 몇몇 학자는 범죄 피해와 두려움 간 관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Gibson et al., 2002). 더욱이 범죄 피해 가설은 왜 범죄 피해율이 더 낮다고 평가되는 개인들의 두려움 수준이 오히려 더 높은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학자들은 ‘범죄 피해-두려움’의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간접적인 범죄 피해 경험을 끌어들인다. 지인과 친구로부터, 혹은 대중 매체로부터 얻는 범죄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도 모두 범죄에 대한 개인의 느낌과 믿음을 틀리우기 때문에, 개인의 인지된 두려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취약성 가설에 따르면, 신체적 취약성이나 위협에 대한 민감성에서의 연령 편차가 고려될 경우, 범죄 피해-두려움의 관계는 덜 역설적이게 된다. 취약성은 저항 능력과 범죄 피해 이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과 어떻게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범죄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하는 사회적 취약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신체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도 더 높고(Killias and Clerici, 2000), 신체 피해로부터 더디게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하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Greve, 1998). 사회적 취약성의 논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범죄 피해에의 노출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범죄율이 높은 동네에 거주하는 것은 종종 범죄 피해의 잠재력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집을 보호하거나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결여된 개인들은 높은 사회적 취약성을 느낄 것이다.

셋째, 무질서 가설에서는 실제적인 범죄보다 이웃의 문명화되지 못한 행동 양식, 황폐화된 환경이 주민들을 더 위협한다고 가정한다. 이웃의 무질서를 의미하는 물리적인 쇠락과 황폐화는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 부족과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의 부재를 상징화한다. 이 가설에 의하면, 이웃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무질서하다고 인식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LaGrange et al., 1992). 무질서의 인식은 환경적 불확실성과 안전에 대한 인지된 위협으로 번역된다(Kennedy and Silverman, 1985). 무질서가 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약화나 부재에 대한 연상 작용에 의해 두려움의 감정을 유발하

는 것이라면, 제대로 작동되는 비공식적 사회 통제, 경찰의 적절한 순찰 활동과 법 집행은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완화할 수 있다(Zaho et al., 2002).

넷째, 사회 통합 가설은 이웃과 사회적으로 잘 통합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선행 연구는 친구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의 증가가 노인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려왔다. 사회 통합은 해당 지역에서 낯선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주민들이 스스로 이웃의 한 부분임을 느끼는 정도(Hunter and Baumer, 1982), 이웃에 대한 개인의 투자, 이웃과 사회 유대를 맺는 것, 지역 사회에 대해 감정적 애착을 느끼는 것(Kanan and Pruitt, 2002) 등으로 정의되곤 한다. 부가적인 사회 통합의 척도들에는 공식 조직에의 참여, 이웃 활동에의 관여, 이웃과의 정보 공유, 주민 간 유사성에 대한 인식, 이웃에 친구나 친척이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Bursik and Grasmick, 1993). 이 가설은 이웃을 잘 알고 이웃과의 유대가 강한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낮은 수준의 두려움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섯째, 생활양식 가설은 두려움의 사회 심리학적 발생 과정에 주목한다(Van der Wurff et al., 1989; 노성호 외, 2012: 191에서 인용). 생활양식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범죄 피해 가능성에 잠재적으로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생활양식에 따른 사회 심리학적 모형에 포함되는 주요 변인은 매력성, 악의적 의도, 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등인데, 특히 매력성은 잠재적 피해와 관련된 핵심 요소이다(노성호 외, 2012: 191). 매력성은 자신 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물이 매력적인 범죄의 대상이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간주하는 정도와 관계가 깊다. 이 가설에 따르면, 자신이나 자신의 재물이 매력적인 범행 대상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범죄의 두려움 수준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페라로(Ferrao, 1995)는 개인의 특성과 거주지의 특성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생태학적 특성(대중 매체, 이웃과의 관계, 이웃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일상 활동 유형 등)과 개인적 특성(범죄 피해, 신체적·사회적 취약성 등)은 모두 지역의 무질서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범죄 피해의 위험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준다. 동시에 범죄 피해의 가능성

에 대한 인식(위험 인지)이 강할수록 이를 회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약된 행동을 취하면 취할수록 범죄의 두려움은 증가한다. 그의 위험 해석 모형은 범죄의 두려움과 범죄 피해 위험에 대한 인식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며,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두려움의 직접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한다.

### 3. 연구 문제의 설정

국내 연구에서는 연령과 두려움 간의 정적 관계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설명하는 서구의 가설들은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서구와 우리의 경험이 차이가 나는 것은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분포나 그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연령과 범죄의 두려움 사이의 관계 유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노인층에 한정하여 두려움의 성차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두려움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가 연령의 순수 효과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영향 요인들이 연령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간접 효과인지를 검증한다.

## III. 주요 변인과 자료

### 1. 주요 변인의 측정

#### 가. 범죄의 두려움

통상 범죄의 두려움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감정적 평가를 반영하는 정서적 측면, 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인지적 측면, 범죄 피해를 모면하기 위한 회피 행동이나 보호 행동으로 표현되는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Gabriel and Greve, 2003: 608).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연령이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두려움의 인지적 측면은 페라로(1995)의 제안에 따라 정서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으로 간주한다. 정서적 측면의 두려움은 범죄를 특정화 하지 않은 상태의 ‘일반적인 두려움’<sup>1)</sup>과 피해 유형을 구체화 했을 때 나타나는 ‘범죄 피해의 두려움’<sup>2)</sup>으로 구분하였다. 두려움의 행동적 측면은 회피 행동으로 측정하였다.<sup>3)</sup>

## 나. 범죄 피해와 범죄에의 노출

범죄 피해는 지난 1년 간 가구 및 개인이 경험한 피해를 토대로 가구 범죄 피해, 개인의 재산 범죄 피해, 폭력 범죄 피해의 세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sup>4)</sup> 간접적인 피해 경험은 범죄 문제를 다루는 매스컴과의 접촉 정도와 범죄 사건에 대한 대화 빈도를 묶어 구성된 ‘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로 측정하였다( $\alpha = .787$ ).

## 다. 취약성, 위험 인지, 범죄 피해 유발적 생활양식

취약성은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으로 구분된다. 본인 스스로 느끼는 신체적 취약성은 객관적 지표(몸무게, 장애 여부 등)와는 별개로 인지적 측면의 취약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노성호 외, 2012: 190).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 취약성을 폭력 범죄에 대한 방어 능력의 인식 정도로 파악했다. 사회적 취약성은 가구 소득, 혼인 상태와 같은 객관적 지표와 범죄 피해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의 주관적 측면으로 측정하였다.

- 1) “밤에 혼자 있을 때”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의 두 가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의 합으로써 측정하였다( $\alpha = .863$ ).
- 2) 폭력 범죄(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재산 범죄(절도, 사기, 손괴) 각각에 대한 두려움을 구분하였고, 이 세 가지 두려움을 합산하여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구성하였다( $\alpha = .939$ ).
-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의 네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alpha = .866$ ).
- 4) ‘가구 범죄 피해’는 지난 1년 동안 응답자의 가구에서 발생한 단순 손괴, 주거 침입, 주거 침입 절도, 주거 침입 손괴 피해 중 어느 하나의 경험 유무로 구성된다. ‘재산 범죄 피해’는 지난 1년 간 응답자에게 발생한 절도나 강도 피해 중 어느 하나의 경험 유무, ‘폭력 범죄 피해’는 단순 폭행, 심한 폭행, 성폭행, 강제추행, 스토킹, 단순 협박 피해 중 어느 하나의 경험 유무를 말한다.

위험 인지는 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범죄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생활양식도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외출 시의 행동 패턴에 기초하여 구성한 범죄 표적으로서의 매력성<sup>5)</sup>에 주목하였다.

### 라. 무질서, 사회 통합, 사회 통제

무질서는 물리적 측면(‘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과 사회적 측면(‘무단 횡단, 불법 주·정차 등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다,’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으로 나뉜다. 측정 결과 무질서의 두 가지 차원을 구성하는 하위 문항들은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어서, 위의 여섯 가지 문항의 응답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이웃의 무질서’라는 복합 지수를 구성하였다( $\alpha = .834$ ). 사회 통제는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도( $\alpha = .770$ )<sup>6)</sup>, 사회 통합은 이웃의 응집성<sup>7)</sup>으로 측정하였다( $\alpha = .925$ ).

## 2.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 전국범죄피해조사(2010년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집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이며, 표본은 7,550가구, 가구원 16,557명이다. 조사 대상 시점은 2010

5) 범죄 피해 유발적 생활양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외출할 때 수수한 것보다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외출할 때 비싸고 고급스런 액세서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의 세 문항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alpha = .872$ ).

6) 측정 문항은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범죄 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이다.”이다.

7)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동네의 각종 행사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네 가지 문항이 사용되었다.

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표 1>은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연령 집단은 청년층(34세 이하), 중장년층(35-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각 집단별 가구 유형, 가구 소득, 거주지의 분포가 상이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노년층(24.6%)은 청년층(8.0%)과 중장년층(7.6%)에 비해 단독 가구 비율이 높다.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비율은 13.2%, 중장년층은 19.5%이지만 노년층의 그 비율은 46.5%이다. 가구 소득의 분포를 보면, 노년층의 절반 이상(53.5%)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데 반해, 청년층의 그 비율은 7.3%, 중장년층은 9.1%에 불과하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주요 특징

(단위: 명, %)

구 분	청년층(34세 이하)			중장년층(35-64세)			노년층(65세 이상)		
	남성	여성	합	남성	여성	합	남성	여성	합
가구 유형									
1인 가구	253 (10.4)	152 (5.9)	405 (8.0)	352 (8.0)	317 (7.2)	669 (7.6)	125 (11.6)	544 (33.2)	669 (24.6)
2인 이상 가구	2,187 (89.6)	2,442 (94.1)	4,629 (92.0)	4,048 (92.0)	4,088 (92.8)	8,136 (92.4)	954 (88.4)	1,095 (66.8)	2,049 (75.4)
거주지									
농촌	337 (13.8)	325 (12.5)	662 (13.2)	861 (19.6)	860 (19.5)	1721 (19.5)	470 (43.6)	795 (48.5)	1,265 (46.5)
도시	2,103 (86.2)	2,269 (87.5)	4,372 (86.8)	3,539 (80.4)	3,545 (80.5)	7,084 (80.5)	609 (56.4)	844 (51.5)	1,453 (53.5)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1 (7.8)	174 (6.7)	365 (7.3)	320 (7.3)	483 (11.0)	803 (9.1)	523 (48.5)	930 (56.7)	1453 (53.5)
100만원 이상	944 (38.7)	954 (36.8)	1,898 (37.7)	1,674 (38.0)	1,665 (37.8)	3,339 (37.9)	382 (35.4)	451 (27.5)	833 (30.6)
300만원 미만	874 (35.8)	968 (37.3)	1,842 (36.6)	1,565 (35.6)	1,469 (33.3)	3,034 (34.5)	121 (11.2)	185 (11.3)	306 (11.3)
300만원 이상	293 (12.0)	332 (12.8)	625 (12.4)	553 (12.6)	521 (11.8)	1,074 (12.2)	33 (3.0)	39 (2.4)	72 (2.6)
500만원 미만	138 (5.7)	166 (6.4)	304 (6.0)	288 (6.5)	267 (6.1)	555 (6.3)	20 (1.9)	34 (2.1)	54 (2.0)
500만원 이상	2,440 (100.0)	2,594 (100.0)	5,034 (100.0)	4,400 (100.0)	4,405 (100.0)	8,805 (100.0)	1,079 (100.0)	1,639 (100.0)	2,718 (100.0)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계	2,440 (100.0)	2,594 (100.0)	5,034 (100.0)	4,400 (100.0)	4,405 (100.0)	8,805 (100.0)	1,079 (100.0)	1,639 (100.0)	2,718 (100.0)

대체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가구 유형, 거주지, 가구 소득의 분포는 유사하고, 이 두 집단을 합친 비 노년층과 노년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문에서는 연령 집단별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수준의 편차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게 될 것이다.

## IV. 쟁점 분석

### 1.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세 가지 쟁점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의 두려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둘째, “노년층에 한정해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두려움 수준은 유사한가 아니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가?” 셋째,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노년의 단계와 무관하게 균질적인가? 아니면 노년의 단계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전국범죄피해조사(2010년 기준) 자료 역시 이를 확인해주었다. 반면 범죄에 대한 정서적 수준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행동상의 변화는 모두 연령과 부(-)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표 2>).

<표 2> 성과 연령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표

변인	일반적인 두려움	범죄 피해 두려움	재산 피해	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회피 행동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남성	-1.857***	-3.181***	-.907***	-.758***	-.641***	-3.386***
연령	-.228***	-.599***	-.167***	-.142***	-.129***	-.362***
상수	6.942***	21.957***	7.854***	5,500***	2,949***	12.5***
F	2232.48***	722.83***	378.20***	529.75***	1503.12***	2347.19***
R <sup>2</sup>	.21	.08	.04	.06	.15	.22
수정 R <sup>2</sup>	.21	.08	.04	.06	.15	.22

주: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사례수 = 16,557명. \*\*\*: p < .001

즉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일반적·구체적 두려움은 낮고, 회피 행동은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연령별 두려움에 대한 분산 분석표

구 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범죄 피해의 두려움		회피 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청년	2,440	4.30	1.94	16.58	6.19	7.91	3.27
남자 중장년	4,400	4.04	1.79	16.25	6.10	7.56	2.99
노년	1,079	3.77	1.75	14.70	5.91	7.43	3.01
청년	2,594	6.68	1.92	21.22	6.81	12.14	3.56
여자 중장년	4,405	5.78	2.00	19.04	6.67	10.92	3.54
노년	1,639	4.94	2.13	16.42	6.34	9.22	3.69
F		915.89***		316.98***		966.07***	

\*\*\*:  $p < .001$

두 번째 쟁점은 노인 남성과 노인 여성의 두려움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 쟁점 분석을 위해서는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노성호·김지선(1998)의 지적처럼 이중 위험화 가설이나 평준화 가설은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기에 다소 부적절하다.

우선 연령과 두려움 간의 부(-)적 관계가 성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중 위험 가설의 타당성을 기각한다(〈표 3〉).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 간 두려움 수준의 편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평준화 가설의 예측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두려움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에 비해 여성의 두려움 수준이 큰 폭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표 4〉).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의 평균값에 대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차이는 0.53이나 여성의 그 차이는 1.74로 남성의 약 3배이다. 비록 여성이 남성보다 두려움 수준이 더 높지만 그 연령별 편차는 여성이 더 크므로, 노년층에서의 남녀 간 두려움 차이가 좁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두려움의 다른 두 차원에서도 공통적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남성의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여성의 두려움은 나이가 들어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남녀 차이가 줄어든다는 평준화 가설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sup>8)</sup>

〈표 4〉 연령, 성을 고려한 여성-남성, 청년-노인 간 두려움 유형별 평균 차이 비교

구분	일반적 두려움	범죄 피해의 두려움	회피 행동	
여성-남성 간 두려움 차이	청년층	2.38	4.64	4.23
	중장년층	1.74	2.79	3.36
	노년층	1.17	1.72	1.79
청년-노인 간 두려움 차이	남자	0.54	1.88	0.48
	여자	1.74	4.80	2.92

〈표 5〉 노년층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표

변인	남자		여자	
	일반적인 두려움	범죄 피해의 두려움	일반적인 두려움	범죄 피해의 두려움
장년층(55-64세)	.190 <sup>*</sup>	1.425 <sup>***</sup>	.399 <sup>***</sup>	1.291 <sup>***</sup>
노년 중기(75-84세)	-.058	-.408	-.215 <sup>+</sup>	-1.025 <sup>**</sup>
노년 후기(85세 이상)	.291	.347	-.715 <sup>***</sup>	-1.829 <sup>**</sup>
(상수)	3.773 <sup>***</sup>	14.802 <sup>***</sup>	5.076 <sup>***</sup>	16.927 <sup>***</sup>
사례수	2,120	2,120	2,722	2,722
F값	2.712 <sup>*</sup>	11.958 <sup>***</sup>	18.276 <sup>***</sup>	22.135 <sup>***</sup>
R <sup>2</sup>	.004	.017	.020	.024
수정 R <sup>2</sup>	.002	.015	.019	.023

<sup>+</sup>: p < .10, <sup>\*</sup>: p < .05, <sup>\*\*</sup>: p < .01, <sup>\*\*\*</sup>: p < .001

세 번째 쟁점은 노년층 자체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규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8) 평준화 가설 역시 우리의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노성호·김지선(1998: 192-194)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들의 분석에서는 노인층의 남녀 간 두려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여전히 유의미한 점이 달랐다.

연령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다룰 때 노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노년 단계별로 두려움 수준이 상이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Beaulieu et al., 2007). 이에 노인층을 노년 초기(65-74세), 노년 중기(75-84세), 노년 후기(85세 이상)로 구분한 뒤, 노년 초기를 참조 항목으로 하고 장년층(55-64세), 노년 중기, 노년 후기를 각각 이분 변인으로 구성하여 두려움의 두 차원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비교해보았다(<표 5>).

먼저 남성의 노년 단계별 두려움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장년층 남성의 일반적 두려움과 범죄 피해(구체적)의 두려움은 모두 노년 초기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지만, 노년 중기와 노년 후기 남성은 노년 초기 남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여성의 경우, 노년 초기의 일반적인 두려움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비교할 때, 장년층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고 노년 중기와 후기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거나 낮은 수준이 유의미성에 근접하고 있었다.

요컨대 범죄에 대한 노인 남성의 두려움은 그 유형이 일반적이든 구체적이든 노년 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노인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노년 단계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 효과에 대한 해석

### 가. 기초 분석

서구와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의 두려움 수준은 낮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인 것 같다. 그렇다면 연령과 두려움 간 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독립적 효과를 인정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범죄의 두려움을 덜 갖게 되는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가설은 전자의 견해에 가깝다. 반면 노인이 젊은 사람들보다 범죄의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덜 갖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를 적절히 통제하면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 효과는 사라지거나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은 후자의 견해를 지지할 것이다.

먼저 후자의 타당성부터 검증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

치는 일반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의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한정하여 이 문제를 논증한다.<sup>9)</sup>

〈표 6〉 성별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 분석표(비표준화 회귀 계수)

변인	모형1(연령)		모형2(배경 변인)		모형3(범죄 피해)		모형4(간접 피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노년층	-1,670***	-3,429***	-1,281***	-3,071***	-1,242***	-2,976***	-1,177***	-2,949***
1인 가구			.895***	.116	-.910***	.017	-.865***	.115
거주지(도시)			1,397***	1,230***	1,401***	1,217***	1,367***	1,214***
범죄 피해					2,255***	3,277***		
간접 피해							.939***	1,085***
(상수)	16,368***	19,848***	15,295***	18,818***	15,146***	18,661***	15,064***	18,533***
F값	69,74***	346,09***	50,40***	131,59***	54,31***	124,16***	70,98***	136,64***
R <sup>2</sup>	.009	.039	.019	.044	.027	.054	.035	.060
수정 R <sup>2</sup>	.009	.038	.018	.043	.026	.054	.034	.059
변인	모형5(매스컴 접촉)		모형6(위험 인지)		모형7(방어 능력)		모형8(피해 심각성)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노년층	-1,216***	-2,653***	-1,157***	-2,277***	-1,592***	-3,228***	-1,363***	-2,656***
1인 가구	-.823***	.126	-.665**	-.087	-.911***	.088	-.512*	.085
거주지(도시)	1,411***	1,154***	1,100***	.976***	1,417***	1,240***	1,354***	1,285***
범죄 문제 관심	.342***	.604***						
위험 인지			4,174***	4,048***				
방어 능력					-.413***	-.289**		
피해 심각성							2,106***	1,804***
(상수)	13,243***	15,350***	7,207***	9,514***	16,604***	19,525***	9,711***	13,090***
F값	60,74***	162,74***	820,78***	934,49***	48,92***	102,44***	293,53***	289,14***
R <sup>2</sup>	.030	.070	.293	.302	.024	.045	.129	.118
수정 R <sup>2</sup>	.029	.070	.293	.302	.024	.045	.129	.118

9) 일반적인 두려움 모형에 있어서도 분석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통상 ‘일반적인 두려움’의 척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을 측정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재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차원은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각각의 두려움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따로 검증하지 않고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쟁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변인	모형9(이웃 무질서)		모형10(경찰 활동)		모형11(이웃 응집성)		모형12(매력성)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노년층	-.845***	-2.499***	-.988***	-2.594***	-1.323***	-2.635***	-.809***	-2.432***
1인 가구	-1.286***	-.111	-.869***	.140***	-.868***	.020	-.917***	.204
거주지(도시)	.975***	.691***	1.101***	.778***	1.459***	.617**	1.170***	.972***
이웃 무질서	.378***	.474***						
동네 경찰 활동			-.373***	-.597***				
이웃 응집성					.016	-.170***		
표적 매력성							.383***	.428***
(상수)	10.169***	12.358***	19.151***	24.934***	15.081***	21.084***	13.143***	16.247***
F값	187.40***	329.67***	75.34***	185.11***	37.99***	119.00***	79.90***	150.14***
R <sup>2</sup>	.087	.133	.037	.079	.019	.052	.039	.065
수정 R <sup>2</sup>	.086	.132	.036	.079	.018	.052	.038	.065

남자 사례수 = 7,919 , 여자 사례수 = 8,638 ; \* : p < .01, \*\* : p < .001, \*\*\* : p < .001

우선 두려움의 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변인들을 선택하기 위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연령(노년층), 월평균 가구 소득, 가구 유형(1인 가구), 거주지(도시), 지난 1년 간 가구 범죄 피해 유무, 개인 재산 범죄 피해 유무, 개인 폭력 범죄 피해 유무, 성폭력 피해 유무, 간접적인 범죄 피해, 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인지, 신체적 방어 능력, 예견된 범죄 피해 결과의 심각성,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동네 경찰 활동의 신뢰도, 이웃의 응집성, 범죄 표적으로서의 매력성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성별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였다. 연령은 비 노년층(64세 이하)을 참조 항목으로 하고 노년층(65세 이상)을 이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구 유형은 가족, 형제 등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경우를 참조 항목으로 하고 혼자 사는 경우를 이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거주지는 농촌을 참조 항목으로 하여 도시를 이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 회귀 분석 결과 남성 모형에서는 노년층, 1인 가구, 도시 거주, 가구 범죄 피해, 재산 범죄 피해, 간접적인 범죄 피해, 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 위험 인지, 방어 능력, 피해 결과의 심각성,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동네 경찰 활동의 신뢰도, 이웃의 응집성, 매력성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데 적합했다. 여성 모형에서는 가구 유형(1인 가구)과 거주지(도시)를 제외하고 남성 모형에서 유의미했던 나머지 변인들이 여성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데 적합했다.

다음으로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된 후,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통제 변인이 투입되기 전후의 연령 집단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b)의 변화량에 주목하면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의 효과가 독립적인 것인지 아니면 통제 변인의 효과가 반영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6>은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 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표에는 모두 12개 회귀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은 연령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모형 2>에서 <모형 12>까지는 1차 분석을 통해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을 각각 통제했을 때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통합 모형(<표 7>)은 두려움의 영향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령의 고유 효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모형 1>에서 노인 남성의 두려움은 비 노인 남성보다 1.670만큼 낮고, 노인 여성의 두려움은 비 노인 여성보다 3.429만큼 낮다. 연령별 두려움의 차이는 여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 1인 가구, 거주지(도시)는 남성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에 거주할수록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으며, 혼자 사는 남성은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는 남성보다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Burski and Grasmick, 1993), 분석 결과는 이와 달랐다.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특히 노인 남성)이 배우자나 가족 혹은 다른 누군가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 비해 두려움 수준이 낮았으며, 이러한 특징은 연령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sup>10)</sup> 여성의 경우, 도시 거주는 두려움과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1인 가구는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 역시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았다.

10) 이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두려움은 배우자나 자녀의 범죄 피해에 대한 걱정으로부터도 유발될 수 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t-test 결과 가족 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배우자나 자녀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이를 통제할 경우 가구 유형(1인 가구)은 응답자 자신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았다. 즉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으로 전이됨으로써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더 높은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배경 변인(가구 유형, 거주지)을 통제했을 때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완화된다. 남성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1.670에서 -1.281로 23.3% ( $[-1.281 - (-1.670)] / -1.670 * 100$ ) 감소한다. 배경 변인 중에서는 특히 거주지(도시)가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표 8>). 다음으로 여성 모형을 보면, 도시 거주를 통제할 경우 여성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11.3% 감소한다. 하지만 1인 가구를 모형에 추가했을 때의 연령별 비표준화 회귀 계수 변화량은 도시 거주만을 통제했을 때와 비교하여 크게 바뀌지 않는다(10.4% 감소).

이상의 결과는 남성 집단에서의 연령별 두려움의 차이는 배경 변인, 특히 도시 거주 여부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층이 비 노년층에 비해 도시 거주 비율이 낮고(<표 1>),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보다 두려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이 비 노년층에 비해 두려움을 덜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 집단의 경우에도 도시 거주는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을 낮추지만 그 정도는 남성 집단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모형 3>은 범죄 피해 경험을 통제했을 때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 효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지난해에 범죄 피해가 있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 경험은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모형 2> 대비 비표준화 회귀 계수 변화량을 보면, 노인 남성은 3.0%, 노인 여성은 3.1% 감소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두려움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범죄 피해 가설이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노인 집단이 비 노인 집단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이유가 실제 범죄 피해를 덜 경험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형 4>와 <모형 5>는 간접적인 범죄 피해나 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가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간접 피해나 범죄에 대한 관심은 모두 두려움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 변인들은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접 피해 경험을 통제할 경우 노인 남성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8.1% 감소하고, 노인 여성은 4.0% 감소한다. 범죄 문제 대한 관심의 정도를 통제할 경우 노인 남성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5.1%, 노인 여성은 13.6% 각각 감소한다. 남성 모형에서는 간접 피해 경험, 여성 모형에서는 범죄에

대한 관심이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이 변인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모형 6>, <모형 7>, <모형 8>에서는 취약성 가설을 검증한다. <모형 6>에서는 범죄 피해의 위험 인지, <모형 7>은 신체적 방어 능력, <모형 8>은 범죄 피해 결과의 심각성이 두려움과 각각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의 위험 인지는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을 다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인지를 통제할 경우 노인 남성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9.7%, 노인 여성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25.9% 각각 감소한다. 특히 두려움에 대한 여성의 연령별 편차는 위험 인지 변인으로써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노인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 비해 자신에게 닥칠 범죄 피해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두려움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피해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 역시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다소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 효과는 특히 여성에게서 보다 더 분명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피해 결과의 심각성을 통제하면 오히려 노년층과 비 노년층 간 두려움 차이가 더 벌어진다. 신체 방어 능력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 변인을 통제하면 남성 집단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이 오히려 24.3% 증가하며, 여성 집단에서도 5.1% 증가한다. 이는 신체적인 능력 차이로써는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노인이 젊은 층에 비해 신체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수준이 더 낮은 것은 역설적인 결과이다.

<모형 9>는 무질서 가설을 규명한다. 거주하는 동네의 사회적 혹은 물리적 무질서서의 기호들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두려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무질서서의 수준을 통제할 경우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 남성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모형 2>에 비해 34.0%, 노인 여성은 18.6% 감소하였다. 이는 두려움에 대한 연령 효과는 부분적으로 무질서 변인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질서의 두 차원, 즉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는 독립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력을 더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모형 10>과 <모형 11>은 두려움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범죄 피해의 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을 통제하면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완화된다. 남성 모형에서는 노년층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가 22.5% 줄어들었고, 여성 모형에서는 15.5% 줄어들었다. 이웃의 응집성은 여성의 회귀 모형에서 두려움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했는데, 응집적인 이웃에 거주할수록 범죄 피해의 두려움은 낮아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응집성을 통제할 경우 두려움이 미치는 연령의 영향력은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남성 모형에서는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데 이웃의 응집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통합 모형의 회귀분석표

변인	남자		여자	
	b	beta	b	beta
노년층	-.932***	-.052	1.227***	-.070
1인 가구	.642**	-.030	-.228	-.011
거주지(도시)	.874***	.058	.244	.015
범죄 피해	.920***	.036	.210***	.038
간접 피해	.460***	.062	.402***	.047
범죄 문제의 관심 정도	.182***	.056	.334***	.091
위험인지	3.327***	.418	.209***	.405
방어능력	-.387***	-.071	.283***	-.040
피해 심각성	.982***	.155	.785***	.119
이웃 무질서	.210***	.147	.251***	.160
동네 경찰 활동	-.129***	-.047	.229***	-.074
이웃 응집성	.046**	.032	.057***	-.036
표적 매력성	.206***	.078	.163***	.058
(상수)	2.920***		6.27***	
사례수		7,919		8,638
F값		350.773***		404.093***
R <sup>2</sup>		.366		.379
수정R <sup>2</sup>		.365		.378

\* : p < .01, \*\* : p < .001, \*\*\* : p < .001

<모형 12>는 생활양식과 두려움의 관계를 보여준다. 범죄 표적으로서의 매력성이 높을수록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변인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 비표준화 회귀 계수 변화량을 보면 노인 남성은 <모형 2>에 비해 36.8%, 노인 여성은 20.8% 줄어들었다.

<표 7>에는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통합 모형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형 2>와 비교해보면 통합 모형에서 노인 남성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27.2% 줄어들고 노인 여성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60.0%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범죄 피해의 두려움이 낮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연령’의 순수 효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며, 두 변인 간 관계의 일정 부분은 연령 외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노년층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변화량

모형	남성	여성
모형 1(연령)	-	-
모형 2(배경 변인)	-23.3	-10.4
1인 가구	-1.5	0.2
거주지(도시)	-21.8	-11.3
모형 3(범죄 피해)	-3.0	-3.1
가구 피해	-1.6	-1.5
재산 피해	-1.6	-1.9
모형 4(간접 피해)	-8.1	-4.0
모형 5(매스컴 접촉)	-5.1	-13.6
모형 6(위험 인지)	-9.7	-25.9
모형 7(방어 능력)	24.3	5.1
모형 8(피해 심각성)	6.4	-13.5
모형 9(이웃 무질서)	-34.0	-18.6
사회적 무질서	-35.8	-20.0
물리적 무질서	-20.6	-11.0
모형 10(동네 경찰 활동)	-22.9	-15.5
모형 11(이웃 응집성)	3.3	-14.2
모형 12(매력성)	-36.8	-20.8
통합 모형	-27.2	-60.0

\* 주 1: <모형 2>의 변동량은 <모형 1> 기준이며 <모형 3> ~ <모형 12>, <통합 모형>은 <모형 2> 기준임

## 나. 요약

노년층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비 노년층, 즉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런 특징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연령 외에도 1인 가구, 거주 지역(도시), 직접적인 범죄 피해, 간접 피해, 범죄 문제의 관심, 취약성(피해 가능성의 인지, 신체적 방어 능력, 예견된 피해 결과의 심각성), 무질서, 사회 통제(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 이웃의 응집성), 생활양식(범죄 표적으로서의 매력성)은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데 적합했다.

이와 같은 변인들은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력을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정리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과 두려움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의 상당 부분은 생활양식 가설이나 무질서 가설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두려움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은 부분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범죄 피해 유발적 생활양식이나 일상 활동 패턴을 회피함으로써 심리적 취약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주변의 무질서를 인식하는 정도가 무디어져 그 기호들을 덜 발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의 기호가 덜 한 곳에 노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두려움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위험 인지, 사회 통제(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 범죄에 대한 관심, 간접 피해에 의해서도 연령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견된 피해 결과의 심각성은 여성의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한편, 범죄 피해 경험은 두려움과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연령이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범죄 피해 가설으로써는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제 변인들이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의 연령별 두려움의 편차는 생활양식 가설(매력성), 무질서 가설, 사회 통제 가설(경찰 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여성 집단의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는 위험 인지 가설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되지만, 생활양식 가설(매력성), 무질서, 사회 통제/사회 통합(경찰 활동, 이웃의 응집성), 범죄에 대한 관심, 피해 결과의 심각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 비로소 올바른 이해

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연령별 두려움의 편차는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연령 외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 3. 연령별 두려움의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의 분포 및 그 영향

연령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는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외적 변인들의 효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년층과 비 노년층의 두려움 수준이 다른 것은 이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이 연령별로 다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표 9>는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성별·연령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노년층은 비 노년층에 비해 재산 범죄 피해, 간접 피해, 범죄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의 정도 역시 노년층이 비 노년층보다 낮다. 범죄 피해의 기회와 관련이 있는 변인, 즉 범죄 표적으로서의 매력성을 유발하는 생활양식의 수준은 노년층이 비 노년층보다 훨씬 덜 하다. 이상의 변인들은 범죄의 두려움과 정(+)의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두려움을 억제하는 변인인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 이웃의 응집성에 대한 평가는 노년층이 비 노년층에 비해 더 긍정적이다. 여성의 경우 노년층은 비 노년층보다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과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 결과의 심각성을 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sup>11)</sup>

11) 무질서와 사회 통제 변인에 대한 노년층과 비 노년층의 편차는 세상을 보는 두 집단의 인식 차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거주지의 생태학적 차이(성별에 관계없이 노인들이 비 노인보다 농촌에 훨씬 많이 거주하고 있다)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사회적 무질서, 동네 경찰 신뢰도, 이웃의 응집성에 대한 평가에는 연령 효과와 지역 효과가 상호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물리적 무질서의 차이는 연령 집단 사이에서만 발견되고 도시와 농촌 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노인들은 비 노인층에 비해 사회적 무질서가 덜 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의 기호에도 덜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들은 비 노인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적·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잘 되는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네 경찰이나 이웃 주민에 대한 시선도 더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은 노인들이 청년이나 중장년층보다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덜 느끼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성별·연령 집단별 두려움 예측 요인의 평균 비교

	가구 피해		재산 피해		간접 피해		범죄 문제의 관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범죄피해	비노년층	0.07	0.03	0.03	0.03	0.27	0.27	5.95	5.85
	노년층	0.05	0.02	0.02	0.01	0.15	0.16	5.76	5.11
	t-value	1.17	1.00	2.6**	6.6***	6.1***	6.3***	2.7*	13.9***
	위험 인지		방어 능력		피해 심각성		매력성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취약성	비노년층	1.99	2.35	3.21	2.47	2.65	3.15	6.11	6.5
	노년층	1.94	2.15	2.44	1.89	2.68	2.94	4.72	4.76
	t-value	1.9	8.6***	21.1***	23.2***	-0.8	7.3***	18.6***	29.7***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동네 경찰 활동		이웃 응집성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무질서/ 사회통제	비노년층	7.25	7.27	7.31	7.33	9.7	9.62	9.95	10.31
	노년층	6.27	6.18	6.87	6.98	10.69	10.67	13.52	13.86
	t-value	13.2***	17.6***	5.4***	5.3***	-13.7***	-17.6***	-25.4***	-32.4***

사례수: 남자 비노년층=6,840명, 노년층=1,079명, 여자 비노년층=6,999명, 노년층=1,639명

\*\* :  $p < .01$ , \*\*\* :  $p < .001$

결과적으로 노년층이 비 노년층에 비해 범죄의 두려움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덜 갖고(덜 영향을 받고) 있고 이를 억제하는 요인들은 더 갖고(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연령과 두려움 사이에 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가구 범죄 피해 경험은 노년층과 비 노년층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결과는 전체적인 범죄 피해 경험이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성별에 관계없이 노인이 비 노년층에 비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낮은 것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소(범죄에 대한 관심, 무질서)에 대한 감각이 상대적으로 무디고, 두려움을 억제하는 요인들에 대해 더 포용적이며, 범죄 피해를 유발하는 생활양식을 덜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통합 모형에서의 노년층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 변화량은 남성(27.2%)보다 여성(60.0%)이 더 크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한다.

한편, 신체적 방어 능력은 두려움을 억제하는 요인이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 두려움의 차이가 신체적 방어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남성 모형에서는 노년층과 비 노년층의 위험 인지 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이 변인을 통제했을 때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은 다소 줄어든다. 예견된 피해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노인과 비 노인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이 변인을 통제할 경우 두 집단 사이의 두려움 차이는 조금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은 두려움에 미치는 촉진 요인이나 억제 요인의 연령별 분포 차이만으로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 V. 논의

나이가 들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며, 특히 노인 여성의 두려움 수준이 가장 높다는 서구의 일반적인 가설은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한국의 범죄피해 조사(2010년) 자료는 연령과 두려움(일반적인 유형과 구체적인 유형 모두) 간의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두려움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인 여성이 아니라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 간 두려움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연령별 두려움의 편차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 글에서는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기대와 경험적 관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 글은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가 이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이 연령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 요인들이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효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위험 인지, 동네의 무질서 상황과 사회 통제의 정도, 범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의 효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된다. 노년층은 비 노년층에 비해 자신에 대한 범죄 피해의 위험성을 낮게 해석하고 동네의 치안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범죄 사건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에 덜 노출되는 등 범죄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차이가 연령별 두려움의 차이를 낳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몇몇 학자들(노성호·김지선, 1998; Ziegler and Mitchell, 2003)은 노인들의 낮은 두려움을 그들의 생활양식 패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관점의 핵심 주장은 노인들은 “날이 저물면 집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이들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노인들은 범죄 피해의 위험을 회피하는 생활양식과 일상 활동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 수준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은 이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범죄 피해 유발적 생활양식은 구체적인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 효과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예견되는 범죄 피해 결과의 심각성’은 두려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에 미치는 연령 효과를 설명하는 데는 다소 제약적이었다. 이 변인은 노인 여성의 두려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노인 남성의 두려움에는 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범죄 피해 경험을 통해서도 연령과 두려움 간 부(-)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다. 비록 가구 범죄 피해, 재산 범죄 피해, 폭력 범죄 피해, 그리고 성폭력 피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 요인이었지만, 이와 같은 범죄 피해 경험을 통제하더라도 두려움에 대한 연령 효과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구 범죄 피해와 폭력 피해의 경우 노년층의 피해율이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해 더 낮지 않았지만 두 집단의 두려움의 차이는 여전히 유효했다.

신체적 취약성은 연령과 두려움 간의 정(+)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해왔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위협에 대항할 신체적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진다는 설명은 그럴 듯해 보인다. 그렇지만 분석 결과 신체적 방어 능력이 두려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능력은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해주지 못했다.

이처럼 연령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는 위험 인지, 동네의 무질서 및 사회 통제의 정도, 범죄 문제 대한 관심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만으로는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가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의 독립적인 효과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동네의 무질서나 사회 통제 수준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있어 연령별 차이는 왜 나타나는가? 위험 인지, 무질서와 사회 통제에 대한 지각이 연령별로 달라짐으로써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프랭클린과 동료들(Franklin et al., 2008: 221)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들은 소수자,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론적 기대와 달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무감각화 과정’(process of desensitization)이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위와 같은 개인들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네에 지나치게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위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민들이나 범죄율이 높은 장소에서 오랜 기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변 환경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며, 그 결과 낮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점이 이들의 설명이다.

노인들의 범죄에 대한 낮은 두려움도 나이가 들에 따라 나타나는 잠재적인 무감각화 과정으로서 설명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범죄 피해의 위험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나, 노인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을 낮게 평가하거나 이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저평가 혹은 무감각화는 반복되는 경험과 학습을 통한 범죄 피해에 대한 상황 정의의 수정, 유교 문화에 기초한 노인 공경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로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 “곧 저 세상으로 갈 몸인데”라는 체념적 사고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로 인한 두려움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쉽게도 범죄 피해 조사 자료 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다. 차후의 발전된 논의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분석 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들이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소 과장된 것이며 노인에게 있어 두려움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노인들은 그들의 동네를 걸어 다닐 때 불안을 느끼고 있고 범죄의 두려움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김지선(2004)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사회적 구성물이다. 노인들의 두려움이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의 정도가 두려움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Donnelly, 1988). 본문의 분석에서 잘 드러났듯이,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에게도 인지된 위협, 동네의 무질서는 두려움을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 반면 동네의 사회 통제 수준은 범죄의 두려움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위협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이를테면 도보 순찰과 시민과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원리에 기초한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은 노인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는 낮은 수준의 두려움과 연결되며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걱정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지된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경찰 활동 스타일의 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변화는 이웃의 집합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무질서를 스스로 제어하려는 주민들의 노력과 적절히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선. 2004.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구성과 결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 논문. 미간행.
- 노성호 · 김지선. 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169-205.
- 노성호 · 권창국 · 김연수. 2012. 『피해자학』. 도서출판 그린.
- Beaulieu, Marie, Dubé, Micheline, Bergeron, Christian, and Cousineau, Marie-Marthe. 2007. "Are elderly men worried about crime?" *Journal of Aging Studies* 21: 336-346.
- Bursik, R. J., Jr. and Grasmick, H. 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Dammert, L. and Malone, M. F. T. 2003. "Fear of crime or fear of life? Public insecurities in Chile."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22(1): 79-101.
- Donnelly, P. 1988. "Individual and neighborhood influences on fear of crime." *Sociological Focus* 22: 69-85.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ew York: SUNY Press.
- Franklin, Travis W., Franklin, Cortney A., and Fearn, Noelle E.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views* 21: 204-227.
- Gabriel, U. and Greve, W. 2003. "The psychology of fear of crim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 600-614.
- Gibson, C. L., Jihong, Z., Lovrich, N. P., and Gaffney, M. J. 2002. "Social

-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 537-564.
- Greve, W. 1998.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Foresight, not fight."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5: 277-309.
- Hunter, A. and Baumer, T. L. 1982. "Street traffic, social integration, and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2: 123-131.
- Kanan, W. J. and Pruitt, M. V. 2002. "Modeling fear of crime and perceived victimization risk: the (in)significance of neighborhood integration." *Sociological Inquiry*, 72(4): 527-548.
- Kennedy, L. W. and Silverman, R. A. 1985. "Significant others and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0: 241-256.
- Kennedy, L. and Silverman, R. 1990. "The elderly victim of homicide: An application of the routine activities approach." *Sociological Quarterly* 31: 307-319.
- Killias, M. and Clerici, C. 2000. "Different measures of vulnerability in their relation to different dimensions of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437-450.
- LaGrange, R. and Ferraro, K. 1987. "The elderly's fear of crim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research." *Research on Aging* 9: 3372-3391.
- LaGrange, R. and Ferraro, K., and Supancic, M.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9: 311-334.
- Moss, S. Z. and Moss, M. S. 2007. "Being a man in long term care." *Journal of Aging Studies*, 21: 43-54.
- Schafer, J. A., Huebner, B. M., and Bynum, T. S. 2006. "Fear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Gender-based contras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85-301.

- Smith, W. R., Torstensson, M., and Johansson, K. 2000.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Gender differences in contextual sensitivity."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8(2): 159-181.
- Taylor, R. and Hale, M.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 151-189.
- Van der Wurff, A., Van Staalduinen, L., and Stringer, P. 1989. "Fear of crime in residential environments: Testing a social psychological mode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2): 141-160.
- Weinrath, M. and Gartrell, J. 1996.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11: 187-197.
- Zhao, J. S., Scheider, M. C., and Thurman, Q. 2002. "The effect of police presence on public fear reduction and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Justice Professional* 15(3): 273-299.
- Ziegler, R. and Mitchell, D. B. 2003. "Aging and fear of crime: An experimental approach to an apparent paradox." *Experimental Aging Research*, 29: 173-187.

## The Elderly and the Fear of Crime: Issues and Empirical Inquiring

Kim, Seong-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the Korean elderly(ages 65 and over)'s fear of crime is lower than the younger(ages 14-64) by contrast to the western experiences, and whether the differences in fear between the sexes among the elderly will be alleviated or expanded, using data from 2010 Korean Crime Victim Survey(KCVS).

The results showed that women feel less safe than men, but the gap between the sexes is diminished with age. The older adults reported significantly less fear than the younger group. This could not be explained away on the basis of age group differences in risk recognition, neighborhood variables(incivility, social control and social integration), and media exposures. Nevertheless these factors could not give a satisfactory explana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age and fear of crim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independent effect of age will be understood by the elderly's latent process of desensitization; that is even though the older's risk of victimization is not decreased in proportion as advancing years, they are inclined to evaluate their own victimization risk lower than the real level or be impervious to recognize it.

This article presumes that tendency of underestimating or desensitizing risk of crime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people might be influenced by the various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modifying situational definitions about their own victimization risk through life experiences, the expectation of respect for the aged based in confucian cultures, and changing the matter of

---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Kyungnam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primary concern from crime to healthy problems. But unfortunately this study could not empirically testify the validity of these hypothesis, and gives the finishing to hope for the improved discussion about it hereafter.

- ❖ Key words: the elderly, fear of crime, vulnerability, neighborhood variables, media exposure, attraction of crime target, desensitization